

## 후진국 네팔과 네팔인의 환경 친화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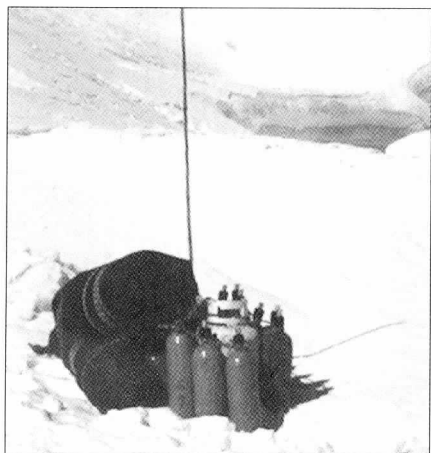
오 영 상

전남대 문헌정보학과 졸  
전남일보 사진부 기자  
1994년 일본 히로시마  
아시아게임 취재  
1996년 조선대 에베레  
스트 원정대 대원  
광주매일신문 사진부장  
광주빈사경기연맹 이사  
국립공원협회 회원  
광복회 회원

에 베레스트가 네팔에 위치하며 만년설로 덮여 있  
는 세계 최고봉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심지어 8,848m라는 높이마  
저도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의 잘못된 암기 교육 덕택에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남극 그리고 북극과 함께  
세계 3극지의 하나라는 사실까지도 아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곳이 네팔의 사가르마타 국립공원의 한 봉우리  
며, 후진국인 네팔의 철저한 환경정책과 네팔인의 환경친화  
정신으로 깨끗하게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리 많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지난 7월말 광주에 있는 조선대와 광주매일신문의  
'96 에베레스트 원정대의 대원으로 3개월에 걸친 에베레  
스트 원정을 마치고 왔다.



국립공원사무소에 반납을 위해 모아둔 GAS카트리리지들

평소 환경사진과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नेपाल 정부와 नेपाल인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일련의 정책들은 그들의 빈곤과는 대조적으로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오후 2시에 어김없이 비가 쏟아지는 우기에 नेपाल의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했다.

그곳은 우리나라의 웬만한 도시에 비해 지저분하고 눅눅한 도시임에 틀림 없었다.

거리 곳곳에서는 불쑥 손을 내밀며 동냥을 하는 거지들을 만나게 된다.

우리나라의 70년대를 연상케 하는 그런 후진국의 수도였다.

이런 아침 거지들이 도로변의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선진국에서 폐차된 차

량들과 불완전 연소차량들이 내뿜는 매연으로 숨이 막힐 지경인 경제 빈곤의 아픔을 그대로 안고 있지만, 그들의 환경정책은 미래 지향적이고 인간과 자연이 친화하도록 갖은 노력을 한다는 사실이였다.

각국에서 시즌별로 몰려드는 원정대에게 입산허가를 내주는 관광성의 방침은 이렇다.

입산허가당시 쓰레기 예치금을 맡기고 건전지, EPI가스 카트리지(cartridge), 산소통 등의 환경오염에 직접 관련된 품목들은 사용개수를 미리 써서 신고하고, 사용후 반드시 반납해야 예치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쓰레기 예치금도 등정하려는 봉우리의 높이에 따라 차이를 두었다.

7천m대는 3천달러이며, 우리 원정대가 오르려는 에베레스트는 8천m이상이



만년설로 덮여있는 사기르마타 국립공원을 배경으로 감사 수확하는 이낙네들



돌담, 그리고 야생화와 어울어진 사카르타 국립공원의 절경은 한 장의 수채화 같다.

므로 4천달러를 예치해야 했으며, 건전지는 200개, 가스통은 50개, 산소통은 9개를 신고했다.

입산비도 94년 5만달러에서 96년부터는 7만달러로 대폭 인상하여 너무 많은 원정대가 몰려드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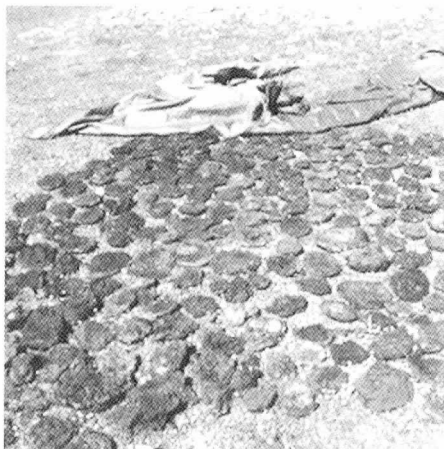
이러한 조치들을 두고 경제 후진국인 네팔이 관광수입만 노리고 있다고 비난하는 알피니스트들도 있지만, 그 속내는 시즌마다 몰려드는 세계 각국의 원정대에 의해 히말라야의 산들이 더 이상 오염되는 것을 막겠다는 그들의 고민과 철학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까다로운 입산허가나 쓰레기 예치금 제도 등은 오로지 등반에만 들떠 있는 각국의 원정대원들에게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주지시켜 주는데 충분했다.

모든 원정대가 짐을 나르는 포터, 그리고 현지 안내인인 세르파를 고용, 등반에 나서기 때문에 이들에 의한 감시 체계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실제로 캐러밴을 시작한 후 야생화와 만년설로 덮혀있는 설산으로 조화를 이룬 절경이 우리들의 시선을 잡았다.

그리고 코스마다 트래킹을 온 각국의 관광객들로 붐볐다.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건조하고 있는 야크 (고산에 사는 소) 배설물

그러나, 그곳에서는 쓰레기를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에 있는 절경 앞에는 그 절경을 사진으로 남기려는 관광객들이 마구 버리고 간 필름통과 음식물 쓰레기등이 나뉘군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후진국이라며 비웃었던 내자신이 부끄러웠다.

또 이들은 연료가 부족하여 야크 배설물을 말려 연료로 사용하지만 절대로 살아있는 나무는 베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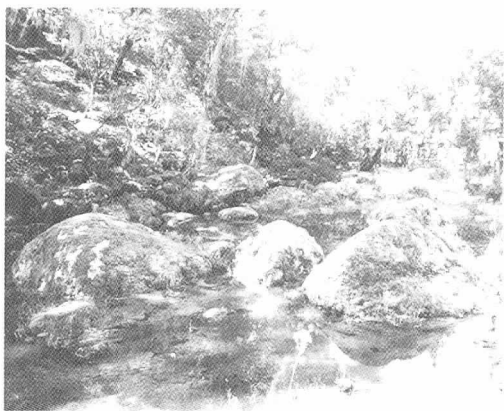
캐러번 도중에 낮은 지대에서 장작을 비싼 수송비를 들여 포터들이 짊어지고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아마 이들이 우리나라의 70년대처럼 낫을 들고 남벌에 나섰다던 매서운 날

씨에 잘자라지 못한 나무들조차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황폐해졌을 것이라 생각하니 남의 나라지만 이들의 철저한 자연사랑 정신에 감동했다.

고산병에 시달리면서 가까스로 고도 5,400m인 베이스 캠프에 도착한 우리를 또 한번 놀라게 한 것은 베이스 캠프가 빙하지역으로 얼음과 바위들로 이루어졌지만 간이화장실을 만들어 인분을 한곳에 모아 원정을 끝내고 하산할 때 사가르마타 국립공원 관리무소가 있는 남체(3,440m)까지 포터를 고용, 운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쓰레기를 소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감시활동과 등반의 위법성 감시를 위해 각국의 원정대마다 1명씩의 정부연락관이 베이스 캠프에서 텐



등산로 주변이지만 오염이 안된 원시림과 이끼류들

트생활을 같이 했다. 우리 원정대는 에베레스트 정상에 태극기를 휘날리는 쾌거를 이루고 들뜬 마음으로 하산하면서도 우리가 모아둔 쓰레기와 인분을 포터를 고용, 남체까지 수송해 확인서를 받았으며, 입산허가시 신고한 물품은 정확한 개수를 카트만두까지 헬기로 수송하여 네팔정부의 관광성에 신고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나 정책보다 더 중요한 환경 안전판은 척박한 고산에서 오직 외국의 원정대에 생계를 걸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고산족들의 몸에만 자연과의 친화정신과 오히려 그들에 의해 길들여진 각국의 원정대원들의 의



노브제에 설치된 스테인레스 소각로 다른 지역에서의 소각은 금지된다.

식일 것이다.

바로 에베레스트는 한 후진국 네팔의 국립공원이 아니라, 세계의 공원이라는 인식을 공감하고 하산하는 우리 원정대의 마음 속에는 세계 최고봉을 등정했다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자리하고 있었다. ♠



남체 비자르 주변의 까마귀들네팔인들은 종교 영향도 있지만 동물들을 일체 남획하지 않는다